

현장취재 '야타족' '나타족' 그들의 실상

부킹에서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호텔, 결혼까지

타락한 젊음의 밤의 환락, 그 끝은 어디인가

'사랑은 필요없다. 돈과 쾌락만이 있을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하루밤의 쾌락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부나비가 되었다.

최근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 한 후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까지 갈취한 명문대생 송모 군을 비롯한 2명의 이른바, '야타족' 사건은 황금만능에 빠져있는 일부 젊은이들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데 바람쐬러 나왔다"는 말과 고급승용차를 탄 그들의 제의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차에 올라탔다는 사실도 놀랍다. 승용차 속의 남자가 "야, 타!" 하면 제의를 받은 여성들은 "나, 타!"라며 가볍게 생면부지의 남성 차에 올라탄다고 해서 생긴 말이 '야타족', '나타족'이다.

그랜저, 외제 스포츠카 수준 소나타는 하한선

강남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방배동 카페골목, 홍익대학교 입구, 돈암동 성신여대 앞, 신촌을 비롯한 이태원 유흥가 주변에는 고급 승용차를 탄 남성들이 디스코 클럽과 가라오케를 거쳐 호텔이나 여관방으로 함께 가줄 여성을 찾아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고급차, 기백만원의 유흥비가 우스운 지갑을 가진 야타족에게도 그들 나름의 '계명'이 있다. 즐긴 후에는 깨끗이 정리한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면 옷, 액세서리, 핸드백, 구두 등 될 수 있는 한 많은 선물을 한다. 여성이 거절하면 두번 다시 치근덕거리지 않는다 등은 이른바 이들 '야타족'의 계명이다.

8월 11일 오전 1시, 서울 압구정동의 속칭 로데오거리 1 백화점 앞. 영화 속에서 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밤거리를 방불케 하는 압구정동 밤 무대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다. 그랜저 승용차를 탄 젊은 남자 두명이 서행하며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이미 길 양쪽에는 하룻밤의 신렐렐라를 꿈꾸는 여성들이 두서너명씩 무리를 짓고 서 있다. 그랜저는 그중 요즘 한창 유행한다는 주홍빛 형광색 란체리 원피스(속옷 패션)와 몸에 딱 달라붙은 검정색 배꼽티에 간신히 엉덩이만 가린 '똥꼬치마'를 입은 두 여성에게 다가갔다(그 여성들은 이미 30여 분 전부터 서 있으면서 앨란트라 승용차의 제의를 거절했다).

"커피 한잔 할래요? 교외로 빠질 건데..." 여성들은 잠시 귀엣말을 건네더니 엄지 손가락을 세워 보인다. 승락의 표시다. 뒷좌석에 파트너를 태운 그랜저 승용차는 출퇴근 시간을 방불케 하는 로데오 거리의 차량혼수 속을 곡예하듯 빠져나갔다.

신촌 이대 전철역에서 로타리에 이르는 길. 1호 호텔을 비롯해 수십개의 여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8월 12일, 자정을 몇분 앞둔 시간. 금요일이라 그런지 연대 진입로부터 로타리에서 이대 전철역과

이대 진입로에 이르는 길이 젊은이들로 포화상태다. "줄리아나에 갈 건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로얄 프린스의 한 남자가 두명의 여성에게 건넨 말이다. 줄리아나는 강남에서 가장 물 좋은 1호 호텔 나이트 클럽을 말하는 것이다. 그 뒤 몇마디 더 주고 받던 세사람은 쓴살같이 신촌 로타리를

다. 수수하게 차려 입은 젊은이나 이십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 채 돈 많고 유행에 맞는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멤버십카드까지 지급하는, 그들에게 천국으로 여겨지는 물 좋은 나이트 클럽인 강남 1호 호텔의 줄리아나, 2호 호텔의 코마, 3호 호텔의 사가와 4호

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남녀평등시대에 맞추어 남자에게 선택 되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여성들이다.

낙태수술 비용은 남자의 몫

클럽에서 부킹을 하지 못한 여성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앞서 열거한 물 좋은 클럽 주변에는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여성들이 승용차를 탄 남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널린 냄비'로 불리는 족들이다. 널려 있으니 그냥 집어가면 된다는 뜻이다. 이들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는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

비슷한 의미로 '부폐식당'이라는 말도 있다. 유흥가 주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정신없이 비틀거리는 여성들을 가르킨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태우고 성행위를 한 다음 아무 곳에도 버려도 상관 없다는 의미를 지닌 그들의 비어다.

나이트 클럽에서 부킹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쓴 비용까지 남자들이 다 지불하고 새벽 1시 정도면 2차를 가려고 나온다. 2차는 가라오케나 잠자리다. "가라오케에서 자연스럽게 짝을 맞추어 각자 나가는데 호텔로 가는 것이 정석이죠. 만약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는데 여자가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자들이 '왕제수'하면서 욕을 해댈니다."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최효민 양(21, 가명, 1년)은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 비용을 대자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이지만 잠자리를 기대하고 남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전한다.

"여자들 중에는 실컷 놀고 남자들에게 바가지나 씌우자는 생각으로 부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이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잠자리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압구정동이나 홍대 입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낮은 얼굴들이 많다. 나오는 이들이 늘 같기 때문이다. 매일 파트너를 바꾸며 놀다보면 같은 상대와 잠자리를 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 사이에는 너무 일반적인 일이고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잠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든 다음 날 아는 체도 안해요. 마음에 들면 남자 쪽에서 선물 공세를 퍼쥌. 그것이 사랑이나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은 기적에 가깝죠. 한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을 표시하는 시기와 싫어하는 기간이 너무 빠르고 너무 짧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유로운 성관계, 깨끗한 뒷정리로 밤의 향락이 끝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다소 감소될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잠자리의 결과에 대해 그들 중 아무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임요? 거의 안해요. 피임약을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부분 즉석에서 만나고 기분나쁘게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 신경을 못쓰죠." 최 양의 친구 중에는 6번 정도 낙태수술을 한 여자도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걱정을 받는 아이다. "왜 피임을 안하느냐고 물으면 귀찮대요. 남자도 기분이 안나다고 콘돔을 안끼고. 그러니 생기는 대로 지워버리는 거죠."

수술비는 잠자리를 함께 한 남자가 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는 어느 병원이 싸고 소문도 안난다는 정보가 돈다.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방배동 카페골목을 사이에 둔 모 산부인과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병원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선택되기 바라는 진열 상품

이들 젊은이들의 행보가 자칫 신세대나 X세대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이들을 무조건 신세대라고 칭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정의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새로운 세대가 될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어느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남성상위, 남성의존문화에 빠져 있는 그들의 문화는 돈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황금만능적인 향락문화의 최악 상태일 뿐이다.

다시 최 양의 말이다. "카페에 앉아 있다면 근사한 스포츠 카가 서요. 당연히 여



하루밤의 파트너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의 행태가 자칫 프리섹스주의나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는 돈 많은 남자를 중심으로한 철저한 남성상위, 남성의존적인 향락문화에 불과하다 (사진은 8월 15일 새벽 1시 홍대입구의 한 카페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 이중 한 여성은 결국 남성의 제의를 받아들여 차를 타고 떠났다). (사진·민원기 기자)

길거리에서 승용차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널린 냄비'라고 부른다. 널려 있으니 그냥 집어가면 된다는 뜻이다.

빠져 나갔다. 남자들이 밤 거리에서 그들 말대로 '킵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형 이상의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외제 스포츠 카면 그날 밤은 제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어디서라도 여자들을 태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산 차 중 그랜저는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다. 중형차도 헌팅에 실패할 확률은 적다. 그러나 소나타 이하로 내려가면 헌팅은 '남의 집 잔치 상'이라고 한다.

나이트 클럽 부킹이 가장 일반적

이들이 하룻밤의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길거리 즉석 만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나이트 클럽에서의 부킹이다. 부킹은 애초 길거리에서 차를 타고 나온 남녀 간의 만남을 가르키는 용어였으나 요즘에는 처음 만나는 것 자체를 모두 부킹으로 표현한다.

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는 소위 '물좋은' 나이트 클럽이

텔의 치치 등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룬다.

보통 한 테이블 당 기본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고 룸으로 들어가면 백만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최고가인 이들 클럽에 입장하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매일 수십명이다. 나이트 클럽에서의 부킹은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웨이터를 통해서다.

자신의 단골이 왔을 경우 그날 모인 손님 중에 가장 '물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실력 있는 웨이터의 의무다. 부킹이 성공했을 경우 웨이터에게는 보통 20만원 이상의 팁을 주는 것이 예의(?)다.

두번째 방법은 남자들이 직접 찾아 나서는 경우다.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전화(젊은이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카페나 클럽에는 테이블 당 하나씩 전화가 있다)를 걸어 제의를 하는 방법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여자들이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찾아 클럽안을 돌아다니는 것. 최근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여성신문 만평

장 양 선

